"1년짜리 비정규직 양산"

■ 대학 시간강사 자살 그후 1년 … 달라진 것은?

개정안도 국회 심의 중…신분 불안 여전

강의료 줄이려 초빙·겸임교수 채용 일쑤

시간강사가 열악한 근무 환경과 채용 과정에서 만연한 교수 사회의 부조리를 폭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전국적으로 이슈화 〈광주일보 2010년 5월 27일 1·6면〉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선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조선대 시간강사 서모(45)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전 광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씨는 유서를 통해 빚을 얻어 생활해야만 하는 시간강사 가정의 궁핍, 교수를 채용하는 전국의 상당수 대학들이 금품을 요구하는 관행 등을 고발했다.

당시 광주일보의 서씨 관련 기사로 시간강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촉발되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크게 달라진 상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26일 오전 조선대 본관 앞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은 서씨의 안타까운 죽음에 슬퍼하면서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삶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추모사에서 "당신이 소원했던 비정규직 교수들의 처우 개선과 교권 확립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며 "비합리적이고 위계화된 대학의 시간강사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교권 확립과 생활임금 쟁취를 해결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공공연한 사실로 통했던 교수사회의 비리가 서씨의 죽음과 함께 세상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후 정부는 지난 3월 강의료 인상과 시간강사 교원 신분 부여,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개정안은 국회 심의 중이다.

그러나 서씨의 죽음 이후 1년이 지났지만 7만2000명으로 추정되는 대학의 시간강사들은 시간당 강의료 3만~6만원을 받고, 신분의 불안정성을 감내하며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다.

시간강사들은 정부의 개선안은 "1년짜리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원 신분이 부여됐지만 시간급을 받는 것은 똑같은데다,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났을 뿐 결국 계약직이라는 사실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대학들이 시간강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의 증가를 덜기 위해 전업·비전업 시간강사를 구분해 강의료를 차등지급하고, 시간강사 강의료의 3분의 1에 불과한 초빙·겸임교수를 채용하는 등 시간강사들의 입지를 좁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다문화 가정 합동결혼식 광주시 동구에 사는 필리핀·베트남·중국 등 다문화가정 10쌍의 합동결혼식이 26일 동구문화센터에서 광주웨딩연합회 주관으로 열렸다. 동구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은 234세대에 이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송원대학, 4년제 일반대학 승격

교과부 인가 … 내년부터 18개학과 800명 모집

광주 송원대학이 4년제 일반대학으로 승격됐다.

광주 송원대학은 4년제 일반대학 승격 추진 2년 만에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 4년제 대학으로 인가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명도 기존 송원대학에서 송원대학교로 정식 개칭하게 됐다.

송원대는 그동안 학령 인구 감소 추세와 각 분야별 전문 인력 선호도 증가, 광주·전남의 전략 및 주력산업 필요 인재 공급 등을 감안함과 동시에 전문기술 교육의 전문대 의존도 약화(학원중심 기술교육 심화)를 고려해 4년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송원대 4년제 승격으로 광주지역 4년제 대학은 모두 11곳으로 늘었다.

송원대는 지역사회의 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오는 9월 수시모집 등을 통해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예체능 등 4개 계열, 18개 학과 80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며 정식 개교는 2012년 3월이다.

인문사회계열에는 복지상담분야를, 자연과학계열은 보건분야, 예체능은 문화예술분야, 공학계열에는 지역 전략산업인 첨단산업과 그린에너지 분야를 편성해 다른 대학과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측은 우수교원 신규채용과 취업 제고를 위한 학생취업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17층 규모의 최첨단 강의동 건립, 기숙사 신축 등을 다음달 착공할 계획이다.

송원대는 올해 과학기술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선정, 4년 연속 교육역량강화사업 수행 등 교육역량을 확인받은 바 있다.

송원대학교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대학교와 열정교육, 감동인재, 책임취업을 비전과 슬로건으로 삼아 작지만 강한 교육중심의 사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송원대는 1979년 송원공업전문대학으로 문을 열었으며, 1998년 송원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해 현재 4500여명이 재학중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목포지청 옥암 신청사 오늘 준공식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김진수)이 27일 오전 11시 목포시 옥암동 신청사〈사진〉에서 준공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귀남 법무부장관, 박준영 전남지사, 박지원·이윤석 의원, 이재강 광주지법 목포지원장과 주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목포지청은 1949년 12월 20일 목포시 무안동에서 개청한 후 1971년 12월 10일 용해동으로 이전했다가 40년만에 옥암동 신청사로 옮겼다.

지난 2006년 2월 전남도청 인근 부주산 기슭 옥암동 일대 신청사 부지를 확정한 목포지청은 2011년 3월 대지 2만8195㎡(8529평), 연면적 1만3043㎡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6층 업무동과 지상 4층 숙소동 등 현대식 청사를 완공하고 이전을 준비해 왔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오늘 날씨

식중독 주의!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해뜸 05시 22분 / 해짐 19시 38분 — 달뜸 01시 45분 / 달짐 14시 31분

광 주	흐림	15/23℃
목 포	흐림	15/20℃
여 수	비온뒤 갬	14/19℃
나 주	흐림	15/23℃
완 도	흐림	14/21℃
구 례	흐림	14/22℃
해 남	흐림	15/21℃
장 흥	흐림	15/21℃
순 천	비온뒤 갬	15/21℃
영 광	흐림	14/22℃
진 도	흐림	15/21℃
전 주	흐림	14/23℃
군 산	흐림	14/21℃
남 원	흐림	13/22℃
흑산도	흐림	13/17℃

〈오전〉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1.0~2.0m
먼바다	북동~동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5~2.5m
먼바다	북동~동	2.0~3.0m

〈오후〉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서~북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먼바다	북~북동	1.5~2.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꽃가루지수
보통	경고	보통

	밀물	썰물
목포	09:48 / 22:40	03:15 / 15:44
여수	05:04 / 17:43	11:21 / 23:4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8(토)	29(일)	30(월)	31(화)	6/1(수)	2(목)
날 씨						
최저/최고	16/26	16/27	16/28	17/26	15/27	15/27

국립공원의 야생화

향기 오래 기억돼 꽃말은 '추억'

〈26〉 고광나무

고광나무는 높이 2~4m 정도로 자라는 범의 귀과 작은키나무이다.

줄기는 2년째 되는 해 껍질이 벗겨져 회색이 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줄기를 땔감용으로 많이 사용했지만 서양에서는 화살이나 고기잡이용 창으로도 사용한 기록이 있다. 꽃은 매우 향기로워, 그 향기를 맡으면 장시간 기억한다하여 '추억'이라는 꽃말이 붙여졌을 정도다.

〈박성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과장〉